光日春秋

전성철

임원부터 가르쳐야 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올해 초 한 공석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웅진그룹의 전 임원들은 4년째 매주마다 3시간씩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것도 근무시간인 월요일 오후 4~7시까지이다. 올해는 독서토론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2주마다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 임원들로 하여금 일주일 근무시간의 50%를 교육을 받는 데 쓰도록 할 생각이다.

임원은 한마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는 회사의 운명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의 질’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판단의 질’은 그것이 얼마나 풍부한 지식과 창의적 생각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냐에 좌우된다. 지금은 긴 근무시간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가 돈을 버는 시대이다. 공부는 하는 과정에서는 그 열매를 알 수 없지만 지나보면 꾸준히 집적된 지식과 통찰을 통해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윤 회장은 항상 시대를 앞서 살아온 사람이다.

윤 회장의 발언은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인의 탁월한 통찰이 아닐까 싶다. 삼성의 임원 교육과 관련한 얘기도 눈길을 끈다. 정말 정신이 확 드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액션 러닝 과정은 문자 그대로 서바이벌게임을 방불케 했다. 그 과정은 사람의 판단력, 지식 수집 능력, 팀워크 등 유능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극한까지 개발하면서 동시에 임원들 중 옥석을 선별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결과로 자연스레 기업이 엄청난 도움을 얻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삼성의 저력은 바로 이런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이다. 얼마 전 GE의 크론트빌 연수원에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온 LG 임원들의 경험담도 이런 맥락이다. 모두가 교육을 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결국 GE의 성공도 그 근저에는 바로 임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실은 어떤가. 상당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묘한 전통이 있다. 배우는 것은 소위 ‘아랫것’들이 할 일이지 임원 정도 되면 ‘졸업’하는 것이 정상이란 생각이다. 임원은 기껏 최고경영자 과정에나 가면 모를까 회사에 모여서 배운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회사마다 사원, 과장, 차장급들을 위한 교육은 많다. 직무 교육을 비롯해 프레젠테이션 기법, 멘토링, 코칭&임파워먼트, 외국어, 변화관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 역량 향상을 위한 온갖 프로그램을 갖고 이들을 교육 시키지만 임원급에 대해서는 기껏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 분야의 유능한 리더들을 많이 갖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업 간의 힘든 싸움 와중에 있는 귀사의 임원은,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경영 기법들이나 새로운 경영혁신 사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도대체 그것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갖고 있는가.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성공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70%가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 웅진, 삼성, GE 등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봐왔다. 그래서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들이 네트워킹을 도와주는 이상 불평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의 ‘약발’은 엄청나게 줄었다. 그것을 대신해 이제 ‘지식의 약발’이 엄청나게 커졌다. 지식만이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혁신들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 아는 시간’을 상당 부분 ‘공부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가장 먼저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임원들이다.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수관

치아 튼튼해야 마음 든든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행복 중에서 ‘먹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하는 것은 예부터 치아를 오복의 하나라 칭하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치아가 건강해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시린 치아도 나타나고 무언가 조금은 불편하다. 몸이 약간만 피곤해도 벌써 씹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떤 때는 음식을 씹을 때 이가 받는 느낌이 불편하면 어김없이 몸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는 등 치아의 기분이 몸 상태를 먼저 말해주기도 한다. 이 같이 치아는 건강의 기준이자 신호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도 치과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치아가 손상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치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아의 겉면을 덮고 있는 에나멜 부분은 갑옷처럼 치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갑옷이 벗겨져 손상된 치아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 음료를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후에는 바로 물로 입 안을 헹군다. 또한, 설탕이나 레몬 등을 넣지 않은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콜라나 피자 등 산성 식품보다는 치아 건강에 좋은 우유, 멸치, 생선 등 알칼리성 식품이 좋다.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 녹차, 감잎차 등 잎 차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엿이나 캐러멜 등과 같이 끈적이는 식품은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므로 식후 반드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고, 자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20, 30대에는 매년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사랑니는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뽑는 것이 좋고, 여성들은 임신하기 전에 미리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40~70세에는 칫솔질 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치아질환이 악화할 수 있는 당뇨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잘 낫지 않는 염증이 입안에 생기면 사전에 구강암 검진을 받도록 한다.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고령 노인은 노화 촉진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구강건강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씹는 기능이 줄게 되면 뇌에도 좋지 않으므로 70대 이후에는 타액분비용 껌을 씹어야 한다. 틀니는 매년 보수하고 전동 칫솔, 워터백, 가글 제재 등을 사용해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여러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가 튼튼해 마음이 든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대 치과대학원 교수〉

기 고

김종식

스트레스 없는 건강의 섬, 완도

완도의 도시브랜드는 ‘건강의 섬, 완도’다. 산과 들, 섬과 바다 등 자연이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하고 더 불어 지역사회가 건강함을 지역의 비전과 가치로 삼고 있다. 건강하다는 것은 곧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된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전국에서 완도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완도군이 9.7%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천성이 낙천적인 우리 군민들의 성품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도시브랜드의 일체감과 자긍심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완도군은 민선 3~4기 들어 현대인의 웰빙욕구에 맞춘 건강의 섬 완도 발전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의 알찬 성과를 얻었다.

‘건강의 섬, 완도’가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 선정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 해양관광 브랜드도시 대상, 국민건강문화대상 수상에 이어 최근에는 소비자 조사결과 친환경 도시부문에서 강릉, 화천, 무주를 제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지금 완도군은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행사 개최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신지도와 청산도 등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국내외 주요인사 및 관광객 1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행사이다.

만발한 유채꽃밭을 걸으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무욕과 느림의 삶을 체험하면서 완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시브랜드는 지역의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브랜드가치는 곧 경쟁력이다. 세계일류가 되려면 이미지부터 키워야한다. 브랜드 가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완도군은 세계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고,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느림의 미학과 웰빙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의 섬, 완도’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완도군수〉

금연 음식점 확대하고 지도단속 강화했으면

태국은 잘 알려진 동남아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그런데 그곳은 날씨가 덥다 보니 연중 에어컨을 켜는데 이 나라에서는 에어컨을 켜는 모든 식당들은 금연을 실시한다는 점이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못살고, 국민성이나 문화적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식당들이 의무적으로 금연을 한다니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우리도 지금 30평이 넘는 식당들은 금연이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모든 식당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 크기로 보면 작은 평수 가게가 태반인데 간접흡연이 모두에게 해악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왜 이걸 방치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큰 식당에 가는 사람은 담배 연기를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작은 식당에 가는 사람은 간접 흡연을 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건가? 이런 작은 제도조차도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작은 식당에 가서 담배연기 먹으며 식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일전에 한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었다. 이런 외국 사례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도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김윤지·전남 여수시 안산동

파지 줍는 어르신 사고 위험…안전 운전 해야

얼마전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늦게 퇴근하는데 차를 몰고 중심상가 쪽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무렵 갑자기 저 앞에 검은 물체가 보였다. 거의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차로변경을 하여 지나갔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람을 칠 뻔했기에 너무나 놀래고 가슴이 벌름거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뒤돌아 봤더니 파지를 줍는 할아버지였다.

술집이 많이 밀집된 상가 주변에는 항상 대리운전과 나이트, 각종 술집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길거리에 수북하게 쌓이게 마련인데 그 종이를 주워서 파는 할아버지 같았다. 조그마한 체구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셨으면 늦은 시간까지 파지를 줍는다고 나오셨을까 생각을 하니 안타까웠다.

파지 1kg에 50원, 리어카에 가득 꾹꾹 눌러서 담아도 채 5천 원이 안 된다고 한다. 1t 트럭에 가득 실을 정도로 모아야 2만~2만5천 원 한다는 파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운전, 양보 운전하도록 해야겠다. 어르신들이 무단횡단도 안 하고, 밤에는 밝은 색 옷을 입고 나오시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더 신경을 기울여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박미진·전남 목포시 서산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콘크리트로 ‘떡칠’하는게 하천정비 인가

광주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해방지를 명목으로 호안브럭 등을 조성하면서 도색 콘크리트로 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하천은 수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해 상습지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올해에만 국비 162억 원, 시비 108억 원 등 모두 2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증심사천, 풍영정천, 광주천(2급), 송정천, 용산천 등 5곳의 하천 24.82㎞ 구간을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안브럭 조성, 하천 바닥 준설, 교량 재가설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현재 증심사천과 풍영정천은 각각 70.2%, 60.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천 등은 설계를 끝낸 뒤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공사가 도색 콘크리트 브럭으로 호안을 쌓고, 하천의 바닥을 일률적으로 폭 5~6m로 준설하는 등 지나치게 기능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가 6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정면 배치된다. 친환경 방식으로 하천을 정비한다면서 콘크리트로 떡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증심사천은 평소 유량이 초당 0.2t에 불과한 건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정비 대상지에 포함됐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불필요한 하천을 만드는 데 낭비하는 셈이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서울 청계천을 모델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역점 프로젝트다. 광주천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돼야 한다. 수해를 예방한다고 콘크리트 하천을 만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盧 전 대통령의 사과 지역민은 참담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참담하다. 돈 문제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할 것으로 믿었던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노 정권 탄생에 가장 앞장섰던 광주·전남지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에서 권 여사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 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끈질기게 제기되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를 시인하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한 것이다.

그의 사과는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참여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까지 떳떳지 못한 돈을 받았다니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했던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과의 돈거래 사실만 밝히고 상세한 얘기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돈이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 어떤 빚이 있었는지, 빚은 어떻게 갚았는지 등을 검찰에 앞서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길만이 한때 그를 지지하고 성원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을 해선 국민의 분노만 더할 뿐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추가적인 돈거래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것을 떳떳이 고백해 우리의 자존심만이라도 살려주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권력과 금력의 부패 사슬을 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와 정파에 상관없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는 전원 엄단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추저분한 모습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無 等 鼓

경기바닥론

추락하는 경기는 바닥을 찍는 순간 상승의 날개를 편다. 독수리 새끼가 한 번 비행에 성공하면 나는 것을 멈추지 않듯, 경제도 상승곡선을 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돈이 풀리고 공장이 돌아간다. 주식도 이때 사야 돈이 되고, 기업도 이 순간에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야 수익으로 연결된다. 경기가 언제 바닥에 도달하는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연일 경기바닥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경제지표가 반등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경기선행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15개월만이다.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다.

그동안 MMF(머니마켓펀드)에 집중됐던 시중 자금도 주식, 회사채, 고금리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에서도 주택지표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징후에 이어, 씨티 등 은행권이 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뉴욕증시도 최근 상승세를 탔다.

이를 두고 경기회복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엊그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경제는 장기 침체기에 들었다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부실한 파생상품이 여전히 문제다. 한국도 과도한 선물환 매도 금액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대공황 당시에도 반짝 상승은 있었다. 당시의 다우지수를 보면 1929년부터 3년간 10분의 1토막이 났다. 그사이 수없는 반등이 있었다. 반등은 반짝에 그쳤다. 대세하락은 지속됐다. 일본도 90년대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어닝시즌이 개막되는 8일 뉴욕과 서울 증권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고 한다. 조정을 빨리 끝내고 다시 랠리를 계속하기를 바랄 뿐이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